

# C S L V

CASA LIVING

까사리빙



## 플렉시블 리빙을 위한 모듈러 퍼니처

디자이너로 알아보는 모듈러 디자인 히스토리  
 모듈러 시스템 대표 브랜드 5 / 이토록 기발한 모듈러 디자인. 상상력의 한계를 깨다  
 10개의 가변적인 공간. 다재다능 모듈러 가구 이야기  
 모듈러 가구 카탈로그. 당신에게 맞추어드립니다

2021 FEBRUARY WWW.CASA.CO.KR

ISSN 1228-8993



9 771228 899004

값 7,500원

# MODULAR DESIGN HISTORY

디자이너로  
알아보는  
모듈러 디자인  
히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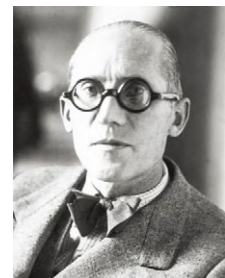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개별성, 제조의 간소화에서 오는 경제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유연성, 부분 교체할 수 있어 더 오래 쓰는 친환경적 특성까지. 모듈러 퍼니처의 미덕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에 있다. 일상에 풍부한 옵션을 제공해온 모듈러 디자인의 진화. 그 뒤의 숨은 주역들을 만나본다.

에디터 정사는 진행 및 글 한예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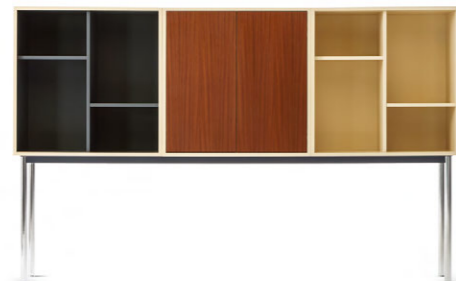
## Casiers Standard 1925

## Le Corbusier

르 코르뷔지에



Le Corbusier, 1945 ©FLC/AD&P



### 카지에 스탠더드

건조한 미터 체계가 불만스럽던 르 코르뷔지에에는 1945년 20년의 연구 끝에 휴먼 스케일을 고려한 황금 비율의 측정 시스템 '모듈로르(Modulor)'를 고안했다. 작은 칸막이들을 뜻하는 '카지에(Casiers) 스탠더드' 캐비닛은 그런 생각이 태동하던 1925년 사촌 피에르 잔느레(Pierre Jeanneret)와 함께 개발한 것이다.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요소의 이동 및 배열 변경이 가능한 모듈러 수납 가구의 개념을 갖췄다. 제품은 1978년 카시나(Cassina)에서 생산하던 것이 한때 중단되었다가 2016년 컨템퍼러리 룩으로 재출시되었다.

©De Pasquale + Marín



## Charles & Ray Eames

찰스 & 레이 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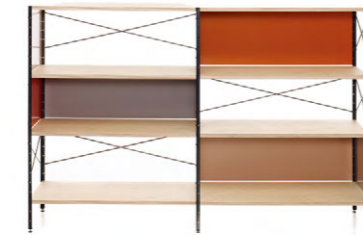


© Eames Office, LLC

### 임스 스토리지 유닛

찰스 & 레이 임스는 인더스트리얼 제작 방식을 가정용 가구에 적용해 합리적 가격과 모던한 미감의 수납 솔루션을 탄생시켰다. 합판과 래커를 칠한 메이소 나이트, 크롬 도금의 스틸 프레임은 소재로 제작해 일단 가볍다.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데, 스틸 버팀목과 함께 앞이나 뒤를 오픈할 수 있고, 서랍이나 슬라이딩 도어 중 선택할 수 있다. 도어의 마감재는 컬러와 원목 합판이 있고, 수납장의 높이에도 세 가지 옵션이 있다. 1950년부터 허먼 밀러사에서 생산해왔으며, 1957년부터 비트라에서도 유럽과 중동 지역 라이선스를 얻어 함께 생산하고 있다. 사진은 비트라 제품.

## Eames Storage Unit 1949



## Eames Desk Unit 1949

### 임스 데스크 유닛

임스 스토리지 유닛과 함께 디자인한 것이지만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매우 기능적이다. 오픈된 수납공간이 있고, 그 아래 서랍은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왼쪽 혹은 오른쪽에 설치할 수 있다. 좁은 공간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한다. 비트라.



## Occasional Table LTR 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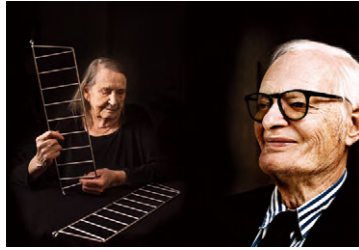
### 어케이저널 테이블

찰스 & 레이 임스는 자신들의 집에서 이 테이블을 유용하게 사용했는데, 그중에서도 자주 목격되는 것이 테이블 여러 개를 일렬로 배열하거나 그룹으로 모아놓은 모습이다. 필요에 따라 모듈 콘셉트로 활용했던 것. 현재 비트라에서 세 가지 다른 옵션의 상판을 얹어 선보인다.



# Nisse & Kajsa Strinning

니세 & 카이사 스트리닝



## 스트링 시스템

스웨덴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닐스 니세 스트리닝(Nils Nisse Strinning)과 그의 부인인 디자이너 카이사 스트리닝(Kajsa Strinning)은 1949년 스웨덴 한 도서관에서 주최한 책꽂이 디자인 콘테스트에 '스트링 시스템'을 출품했다. 알맞은 가격에, 조립이 편리하며, 운반 역시 용이해야 한다는 출품 조건을 만족시키며 당시 대회에서 우승한 스트링 시스템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선풍적 인기를 끌었고, 뉴욕 UN 본사에도 설치되었다. 한때 잠시 생산이 중단되었지만, 2004년 부분적으로 부품을 교체하며 부활했다. 스트링 퍼니처.

## String System 1949



## String Pocket 2004

### 스트링 포켓

스트링 시스템이 선반과 패널, 훅과 막대를 날개로 구입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조립하는 방식이라면, '스트링 포켓'에서는 완성된 선반 하나가 개별 유닛으로 제시된다. 2004년 스트링 시스템의 생산을 재개했을 때, 닐스 니세 스트리닝은 브랜드의 신제품으로 제시하기 위해 이 스트링 포켓을 디자인했다. 스트링 퍼니처.



# Charlotte Perriand

샤를로트 페리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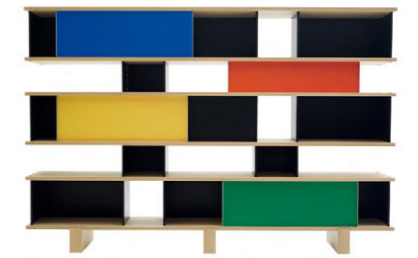


Archives Charlotte Perriand ADJ&P2021 Photographie Paul Gahmann

## 뉴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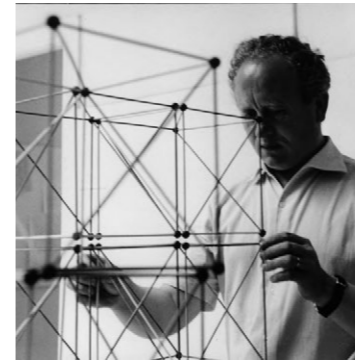
일상 오브제에 인간적 따스함과 독특한 감수성을 부여한 샤를로트 페리앙. '뉴아주' 선반 시스템은 그녀가 1940년 일본 교토를 방문했을 때 구름처럼 생긴 벽걸이 모듈러 선반을 보고 영감을 받아 새롭게 개발한 것이다. 유닛을 조합해 주방 사이드보드에서부터 찬장, 책장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벽에 걸어도 좋고 중앙에 세워 톱 디바이더로 활용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여러 컬러 조합이 가능한 알루미늄 캐비닛은 오픈된 선반 공간과 대비되며 유쾌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1952년과 1956년에 디자인했으며, 2012년 카시나가 생산을 재개했다.

## Nuage 1952



# Fritz Haller

프리츠 할러



## 할러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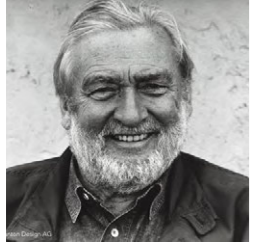
모듈을 이용한 확장과 반복의 개념에 매혹되어 있던 스위스의 건축가 프리츠 할러. 메탈 공장을 운영하던 스위스 회사 USM이 가업을 확장하며 프리츠 할러에게 새 공장과 오피스 건물을 의뢰하자 그는 그곳에 스틸 프레임 모듈을 건물 크기에 따라 사용하는 자신만의 건축 설계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 결과물이 마음에 들었던 회사는 새 오피스의 가구 디자인까지 그에게 의뢰했는데, 바로 그때 탄생한 것이 오늘날의 USM 할러 시스템인 것. 스틸 튜브, 파우더 코팅한 스틸 패널, 연결 부위를 위한 크롬 볼. 이 세 가지 기본 재료로 작은 수납 테이블에서부터 거대한 오피스 수납 시스템까지. 무궁무진한 활용이 가능하다. 컬러 옵션은 열네 가지.

## Haller System 1963



# Verner Panton

베르너 판톤



@Verner Panton Design AG

## 리빙 타워

생기 넘치는 독창성과 지치지 않는 실험 정신의 소유자, 베르너 판톤. 오가닉한 퍼니처 조각 '리빙 타워'는 공간에 색다른 소통 및 휴식 경험을 제공한다. 유닛의 배열 방식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지 리클라이너처럼 비스듬히 기대는 용도로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리빙 타워를 일렬로 연결하면 공간 속의 또 다른 이색 공간이 연출된다. 프레임은 자작나무 합판이며, 마감은 레드와 블루 두 가지 컬러의 폴리우레탄 폼으로 제안된다. 비트라.

Living Tower  
1969



## 클로버리프 소파

디자이너가 추구해온 조각적이고 오가닉한 미감, 기능적 퀄리티가 결합된 모듈러 소파. 유닛의 조합을 통해 공간에 얼마든지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2003년부터 베르너 판톤의 조명을 소개해온 덴마크 브랜드 베르판에서 2010년부터 가구로도 라인을 확장해 선보이고 있다.

Cloverleaf Sofa  
1969



# Luca Meda

루카 메다



## 505

이탈리아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루카 메다는 유연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몰테니&C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그가 1972년에 디자인한 505 시스템은 브랜드 내에서 블록버스터로 불리는 아이템으로 개개인의 요구에 맞게 주문 가능한 모듈러 요소로 구성된다. 과거 루카 메다의 어시스턴트로 일했고, 2003년 몰테니&C의 아티스틱 디렉터가 된 니콜라 갈리치아(Nicola Gallizia)는 2020년 리노베이션을 거쳐 505를 책장, 컨테이너, 유리 캐비닛, 홈 오피스, 멀티미디어 유닛 등 더욱 다양한 변신이 가능하게 진화시켰다. 불필요한 요소를 깨끗하게 가려줄 뿐 아니라 여닫는 방식도 한층 부드러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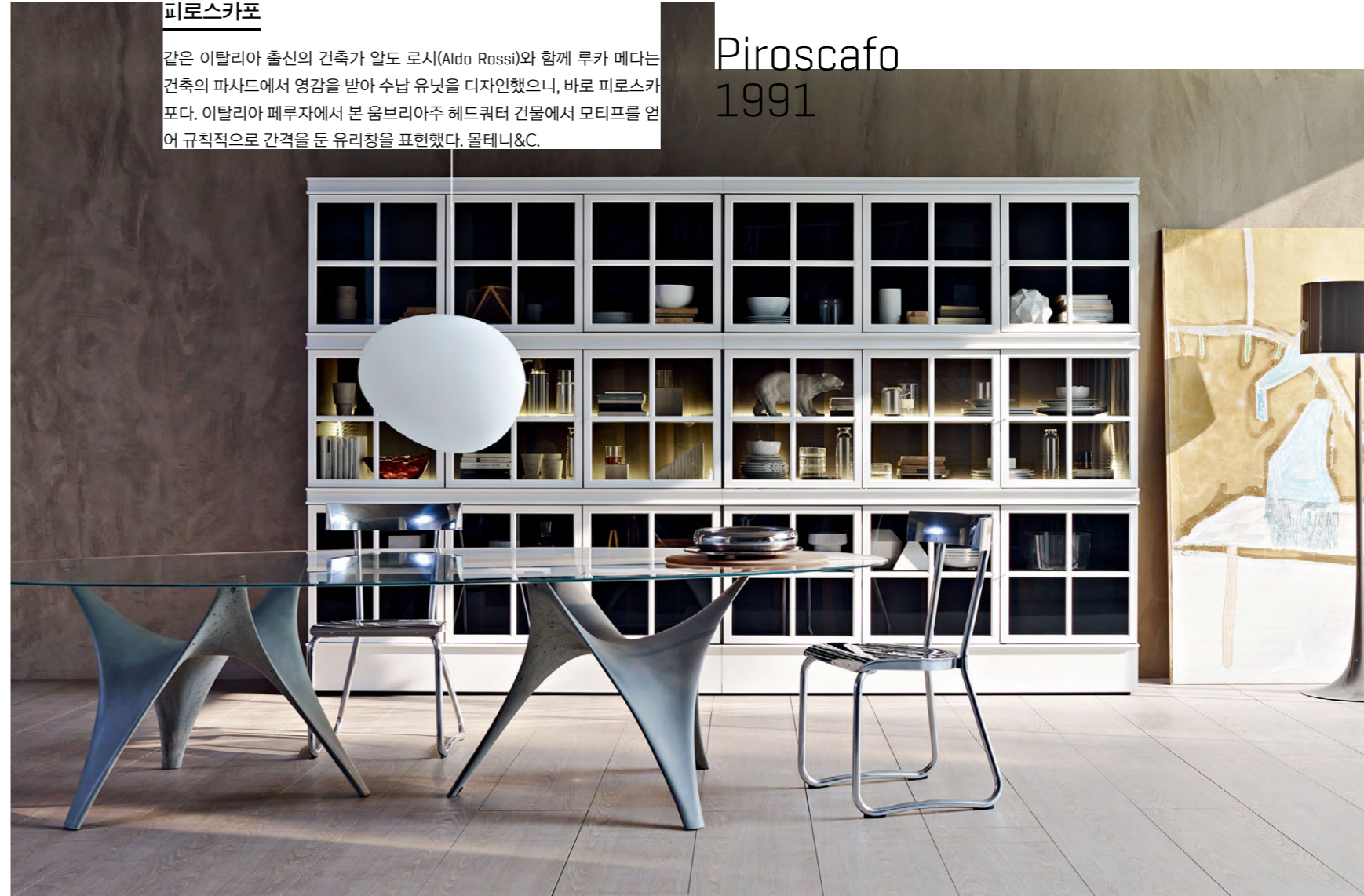
## 피로스카포

같은 이탈리아 출신의 건축가 알도 로시(Aldo Rossi)와 함께 루카 메다는 건축의 파사드에서 영감을 받아 수납 유닛을 디자인했으니, 바로 피로스카포다. 이탈리아 페루자에서 본 움브리아주 헤드쿼터 건물에서 모티프를 얻어 규칙적으로 간격을 둔 유리창을 표현했다. 몰테니&C.

505  
1972



Piroscafo  
1991



# Mario Bellini

마리오 벨리니



Photo by Albert Greenwood

## Cameleonda 1970



### 카멜레온다

카멜레온과 물결을 합친 의미의 이름이 붙은 모듈러 소파 '카멜레온다'는 1970년 이탈리아 건축가 마리오 벨리니가 디자인했다. 케이블과 흑, 링을 이용해 시트, 등받이와 팔걸이를 자유롭게 배치하고 연결할 수 있게 고안했다.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디자이너 자신조차도 자신의 작품 중 가장 자유로운 감각을 지닌 것으로 손꼽는다. 90×90cm 규격의 사각 시트와 그것을 채운 폴리우레탄 패딩의 둥글고 풍성한 매력이 혼합되어 독특한 매력을 발산한다. B&B이탈리아는 2020년 디자이너와의 합의하에 디자인 원본 패턴을 그대로 적용하고, 패딩을 더 편안하게 보완해 재론 칭했다.



## Gli Scacchi 1971

### 글리 스카키

카멜레온다를 위한 보조 테이블 및 좌석으로 디자인한 '글리 스카키'. 체스 게임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마치 체스 판 위 말처럼 가볍고 옮기기가 쉽다. 당시 자동차 분야에서나 적용하던 셀프 스키닝 폴리우레탄 폼을 디자이너는 처음으로 가구에 도입했다. 카멜레온다와 함께 2020년 이 디자인을 재출시한 B&B이탈리아는 부드럽고 두꺼운 가죽 커버와 카누 가죽 두 가지 옵션을 선보였다.

# Ron Ar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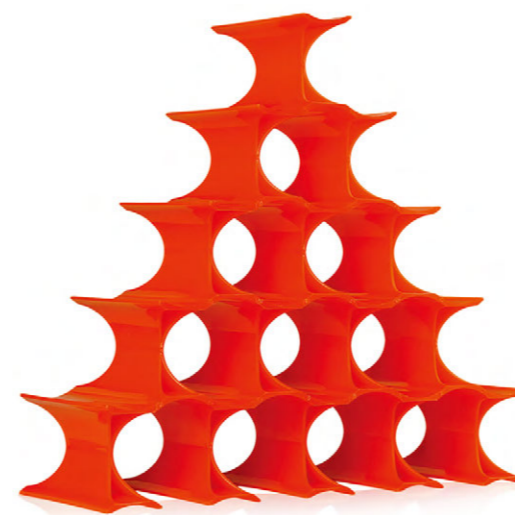
론 아라드



## Bookworm 1994

### 북웜

디자이너의 유연한 상상력과 카르텔의 플라스틱 제조 기술이 환상적 콤비를 이루며 탄생한 '북웜'. 이스라엘 출신으로 영국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론 아라드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제조 기술을 적용해 1990년대부터 여러 디자인적 실험을 했다. 벽걸이 책장 북웜은 컨템퍼러리 디자인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한 상징적 아이템. 사용자는 여러 모듈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연출해 어디에도 없는 조각적 오브제를 누리게 된다.



## 도-로-레즈

'자유롭게 배열할 수 있는 3차원 도표'란 별칭을 지닌 '도-로-레즈'는 기본 모듈의 영감을 픽셀에서 가져왔다. 높이가 각각 다른 직사각형의 모듈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자유다. 심플하게 보이는 외형과 달리 내부 구성은 치밀하다. 폴리우레탄 폼과 폴리 에스테르 파이버 안에는 합판 베이스가 받치고 있어 독립적으로 설 수 있다. 모로소.

## Do-Lo-Rez 2008



## Infinity Bottle-Holder 1998

### 인티니티 보틀-홀더

역시 곡선으로 이루어진 컬러풀한 이 보틀 홀더는 모듈러 형태로 구성되며 카르텔에서 제작했다. 한 개의 유닛으로 된 보틀 홀더를 다른 것과 같이 묶어서 확장할 수 있다. 당시 플라스틱을 통한 다양한 혁신을 보여주던 카르텔과 론 아라드가 만나 다시 한번 디자인의 유쾌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Misfits 2007

### 미스핏츠

서로 다른 형태의 여러 모듈로 이루어진 모듈러 좌석 시스템. 모듈 각각의 유니크한 형태가 여러 방식으로 조합되면서 볼륨과 빈 공간, 흐르는 라인, 곡선 등 다양한 재미를 선사한다. 편안한 폴리우레탄 폼 안에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스틸 프레임이 있어 세운 형태대로 그대로 유지된다. 다섯 개의 커다란 모듈은 코바드라트의 울 패브릭으로 마감했다. 모로소.



# Jasper Morrison

재스퍼 모리슨



## Carrara Tables 2006



### 카라라 테이블스

갈레리 크레오(Galerie Kreo)와 한정 에디션으로 제작한 재스퍼 모리슨의 '카라라 테이블스'의 개념트는 같은 해 카펠리니를 위한 '오크 테이블 모듈(Oak Table Module)'로도 선보였다. 디자이너는 이 테이블에 대한 영감을 한국의 소반에서 얻었다고 말했다. 거기에 1970년대 유행한 낮고 긴 선반의 형태를 더해 자유로운 조합이 가능한 테이블 겸 선반을 완성했다.

### 슈퍼오블롱

실용주의 미니멀리스트인 제스퍼 모리슨의 철학을 반영해 불필요한 장식을 제거한 모듈러 소파 시스템 '슈퍼오블롱'. 유일한 장식인 컬러 지퍼는 각 쿠션 간의 이음매로 작용한다. 이 모델은 2013년 지퍼를 떼어내고 더욱 손쉽게 조합할 수 있는 '오블롱 시스템(Oblong System)'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덕분에 배치에 따라 양쪽 방향 사용이 가능해졌다. 카펠리니.



## Superoblong 2004

# Ronan & Erwan Bouroullec

로낭 & 에르완 부홀렉



## 클라우드

실용주의에 특유의 시적 감성을 더해 새로운 리빙 솔루션을 제시해온 로낭 & 에르완 부홀렉 형제. 이들이 2002년 카펠리니의 전시를 위해 파티션 모듈로 선보인 '클라우드 모듈스'는 이후 2004년 카펠리니의 정식 아이템 '클라우드(Cloud)' 책꽂이로 출시되었다. 중앙에서 선반의 기능을 하는 홀은 구름을 닮은 가구의 이미지를 더욱 가볍고 순수하게 만들어준다. 화이트 폴리에틸렌을 재료로 회전 모듈링 기술을 적용해 만들었다. 카펠리니 역사상 가장 성공적 아이템 중 하나로 2018년 '우든 클라우드(Wooden Cloud)'란 나무 버전으로도 출시했다.

# Cloud 2004



## 알그

이 플라스틱 파티션은 로낭 & 에르완 부홀렉의 디자인 중에서도 가장 독창적인 것으로 꼽힌다. 식물을 담은 개별 모듈이 이어지며, 거미줄 같은 구조를 형성한다. 약 1m를 이루는 25개의 모듈을 하나의 팩으로 판매하며, 컬러는 총 다섯 가지로 블랙, 두 가지 그린, 레드, 화이트가 있다.

# Algue 2004



@ Ronan et Erwan Bouroullec

# Clouds 2009



@ Paul Tassin and R & E Bouroullec

## 클라우드즈

덴마크 패브릭 브랜드 크바드라트를 위해 디자인한 '클라우드즈' 파티션 모듈. 처음 의도는 설치가 손쉬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패브릭 타일을 서로 고정하기 위해 특별한 고무 밴드를 적용했고, 결과적으로 간단한 클릭 한 번만으로 새롭고 무궁무진한 배열이 가능해진다. 시각적인 구분뿐 아니라 소음 흡수 효과도 있다.

# Konstantin Grcic

콘스탄틴 그리치치



@Markus Jans



# Noctambule 2019

Photo by Santi Calasa

## 녹탕빌

핸드-블로운 유리로 만든 실린더 형태의 조명은 밝은 낮에는 투명하지만 밤에 불을 밝히면 마법 같은 존재감을 발휘한다. 하나의 실린더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유닛과 연결하고, 원뿔형, 반구형과 조합해 플로어 램프, 펜던트, 상들리에 등 다양하게 연출해도 좋다. 플로스.

## 필라

그저 미니멀한 테이블 같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모듈러 기능을 위한 정교한 장치가 숨어 있다. 테이블을 확장할 경우를 대비해 각 코너의 솔리드 알루미늄 코너 조인트를 가로 기둥과 다리에 연결해놓은 것. 여러 테이블을 하나로 이었을 때 높이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특별한 기술과 퀄리티를 적용했다.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플랭크.

## TYKE

콘스탄틴 그리치치의 디자인은 논리적인 사고와 재료에 대한 정직한 접근, 제작 방식에 대한 존중으로 특징지어진다. 'TYKE'는 레이저 컷 스틸의 특징을 고스란히 디자인 요소로 사용한 모듈러 선반 시스템. 다리를 바닥에 대고 벽에 기대 세우는 단순한 구성이기 때문에 전체 이미지가 아주 미니멀하다. 기본 선반 넓이는 45cm와 70cm 두 가지로 제시되며, 전체 높이는 2.2m에서 조절이 가능하다. 마지스.

# TYKE 2013



# FILA 2019



# Patricia Urquio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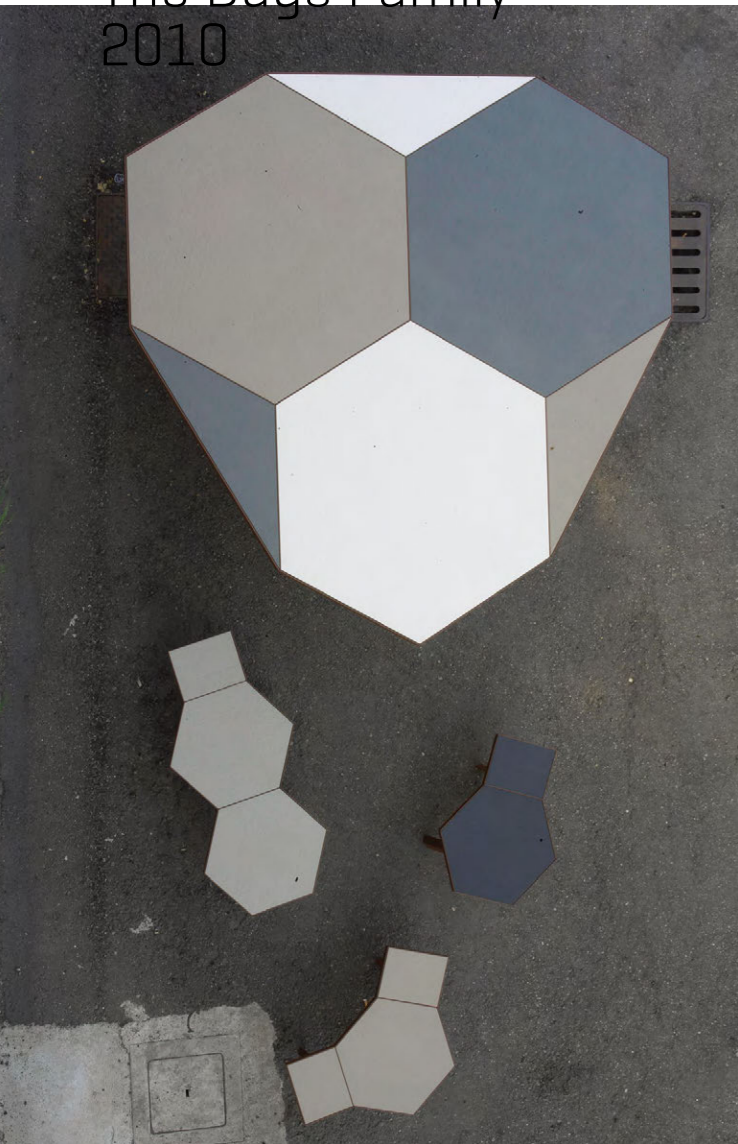
파트리시아 우르퀴올라



## 더 박스 패밀리

이탈리아의 세라믹 브랜드 무티나(Mutina)를 위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한 '더 박스 패밀리'. 곤충의 세계에서 영감을 얻은 테이블은 네 가지 다른 버전의 형태와 사이즈로 구성된다. 서로 다른 컬러의 조합을 놓이처럼 즐길 수 있는 테이블 상판에는 역시 파트리시아 우르퀴올라가 디자인한 엠보싱 느낌의 데시레(Déchirer) 패턴을 적용했다. 가장 사이즈가 큰 테이블은 최대 9인까지 사용할 수 있다.

## The Bugs Family 2010



## Bowly Sofa 2018

### 보위 소파

공간을 좌식처럼 꾸며주는 '보위 소파'는 편안함을 강조한 모듈러 소파다. 전체 디자인에 적합한 부드럽고 환영하는 듯한 커브가 인상적이며, 등받이, 시트 등 여러 개별 모듈을 조합해 필요에 꼭 맞는 구성을 얻을 수 있다. 모서리 처리와 업홀스터리 에지-스티칭에서 놀랍도록 섬세하고 정교한 패브릭 재단 기술이 드러난다. 카시나.



## Chamfer 2018

### 챔퍼

목공에서 '챔퍼'는 두 개의 라인을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 깎은 모서리를 의미한다. 이 소파에서 디자이너는 그 개념을 미적, 기능적으로 적극 활용했다. 모듈은 단 다섯 가지이지만 길이와 깊이는 각각 달라 인체에 가장 편안한 형태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환영하는 듯한 분위기와 함께 다재다능하고 유연한 모습을 보여준다. 모로소.

# Alfredo Häberli

알프레도 하베를리



Photo by Jonas Kuhn

## Giro Sofa 2020



### 지로 소파

알프레도 하베를리는 어린 시절 아르헨티나에서의 기억을 바탕으로 일상에 즐거움을 주는 디자인을 선보인다. 최근에 내놓은 '지로 소파'는 건축적 구조의 모듈러 소파 시스템으로 부드럽고 날렵한 형태를 지녔다. 지로는 이탈리아어로 '둥글게 곡진'이란 뜻. 여러 각도의 커브, 각기 다른 모서리 요소를 택해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다리의 소재는 목재와 알루미늄 프레임 중 선택이 가능하고, 공항, 호텔 라운지 등 공공장소에서 사용될 경우를 대비해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도 내장했다. 앤드루 월드.

### 다도

역시 앤드루 월드를 위해 디자인한 '다도'는 비율과 볼륨, 컬러의 완벽한 조합을 통해 극도의 편안함을 선사하는 모듈러 소파다. 메인 패브릭의 컬러를 중심으로 가장자리 장식이나 이음매에 컬러 변주를 주어 섬세한 재미를 더한다. 코너와 중심 모듈, 긴 의자, 발판 등을 이용해 컬러나 형태에 변화를 꾀할 수 있다.



## Dado 2018